

사설

우리 공동체가 모두 잘 살기 위해서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해야 하는 것이다. 인류는 그동안 수없이 진화해 왔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특히 오늘날은 인간 자체가 네트워크인 시대다. 즉, 인간이 곧 사무실인 것이다. 그렇게 만든 것이 인터넷, 핸드폰, 자동차 등이다. 이 3가지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잡노마드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대사회는 특정한 장소에서 재화를 생산해 내는 사업체가 없어도 된다. 중개무역상, 스포츠선수, 지적(知的) 사업자, 연예인 같은 부류들이 바로 이들이다. 곧 자기 자신이 회사인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 영역을 스스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지적(知的) 사업자는 핸드폰과 인터넷이라는 연결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것이다. 이동 수단은 물론 자동차 등이다. 즉 인터넷, 자동차, 핸드폰이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같은 현재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간단없이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주류에서 방방[邊方]인종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변화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부터 변화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태어나면 서부터 원하던, 원하지 않던지 간에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기왕에 맺어지는 것이라면 원활한 관계여야 할 것이다. 성숙한 관계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해가 깊어지고 서로를 위해 노력할 때 그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같은 상호작용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각기 다른 존재다. 그래서 다양한 행동양식을 소유하고 있다.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구별이 아닌 차별을 해서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흔히 삶의 현장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대사회는 경쟁사회다. 그래서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공동체를 형성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다른 쪽을 배타시 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성취는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곧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노·사간의 타협이 어렵고 계층 간의 융화도 힘들다. 심지어 가족 간의 정까지도 소멸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 형성은 주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때문에 나에게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을 통찰하는 데는 태만하다. 오히려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처음부터 주변 환경에 분노로 대항하면서 자신의 영역만 구축하려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타인을 질시하는 것이다. 자기 불안의 근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안전만 추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자신은 물론 공동체까지 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나를 찾고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참다운 우리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이 변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인간성을 그 기저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공동체가 모두 잘 살기 위해서.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장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년 36,000원

앞선 제 360호에서 손빈의 말 시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에는 세 마리 말 중에서 두 마리가 이기면 승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손빈은 이쪽 말을 상·중·하 세 등급으로 나눈 다음, 상대가 상등(上等)을 내보내면 하등(下等)의 말을 내보내 기꺼이 패배를 감수한다. 그리고 상대가 중등(中等)의 말을 내보내면 상등(上等)으로 대응하여 한 판을 이긴다. 나머지 경주는 상대의 하등(下等)과 손빈의 중등(中等)이 붙기 때문에 돌아볼 것도 없이, 2승 1패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로 신임을 얻은 손빈의 보복이 드디어 시작되었으니. 위나라 경계 안으로 들어간(손빈의) 제나라 군대는 곧장 대량(大梁, =변경, 변량. 북승의 수도. 하남 대평야의 중심지이자 교통, 상업의 중심지)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당황한 혜왕은 서둘러 회군(回軍)을 명령했다. 그리고 태자를 사령관에 임명하여 제나라 군대를 공격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사생 결단을 내렸다는 심산이었다. 위나라 군대가 기세등등하게 결전에 나선 모습을 본 손빈은 겁을 먹고 후퇴하는 것

강성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티비', '강성률 문학티비' 운영중



우정이 철천지 원수로-손빈과 방연(2)

처럼 꾸며, 적을 깊숙이 유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술에 따라 제나라 군대는 작전상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날 10만 병사의 밥을 짓는 솜을 둘째 날에는 반으로 줄였다. 셋째 날에는 3만 명분으로 줄였다. 이를 확인한(위나라의) 방연은 제나라 군대가 겁을 먹고 있다 판단했다. 의기양양해진 방연은 중장비 부대와 보병은 남겨둔 채, 날쌔 기병만을 이끌고 제나라 군대를 쫓기 시작했다. 한편, 손빈은 위나라 군대의 추격 시간을 세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오늘밤이면 마릉(馬陵, 지금의 산동성 경성 동북)에 도착할 것인데, 이곳은 길

이 좁고 지세(地勢)가 험한 데다 나무가 무성하여 매복에 안성맞춤이지. 게다가 나는 이곳 출신인지라, 이 일대의 지형에 대해서는 훨씬 잘 알고...'

그는 이 일대에 공사(활잡이) 1만 명을 길 양쪽에 매복시킨 다음, '위나라 군대가 도착하여 햇불이 타오르면, 일제히 불빛이 있는 쪽으로 화살을 날리도록' 명령을 내려 두었다. 또 길옆에서 있는 가장 큰 나무의 꺾질을 벗기고는, 그곳에 '방연은 이 나무 아래에서 죽는다!'라고 써 놓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예상대로 방연이 마릉에 이르렀다. 방연은 나무에 무슨 글자 같은 것이 쓰여 있음을 발견하

고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햇불을 밝히도록 명령을 내렸다. 햇불이 타오르는 순간, 화살이 그 방향으로 비 오듯 날아들었다. 일대 혼란에 빠진 위나라 군대에는 명령도, 신호도, 퇴각을 알리는 북소리도 먹히지 않았다.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한 방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때 방연은 "결국 손빈, 이 자식의 명성을 높여주는구나!"라며, 끝까지 질투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고 한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개인적 원한까지 풀어버린 손빈은 이후, 속세를 버리고 산야에 은둔했다. 일설로는 귀곡 선생과 함께 선계(仙界)로 갔다고도 전해진다. 1972년 산동성 임기현 은 작산에서 발굴된 전한(前漢) 시대의 귀족 묘에서 뛰어난 병법이 기록된 죽간(竹簡)들이 대량 출토되었다. 손무(孫武, =손자)가 지은『손자 병법』과 다른 저서『손빈 병법』인 바, 바로 이 책이 손빈이 지은 병법서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책은 전국시대 병가(兵家) 사상의 단계적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돌도 없는 자료가 되고 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안전을 위한 약속, 주택용소방시설 선물하기

전라남도의 보물 같은 고장, 우리 강진은 예로부터 이웃 간의 정이 넘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각별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화재 앞에서는 그 소중한 이웃과 가족의 평화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강진소방서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소중한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집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 장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설치하는 일입니다. 약속 1. 우리 집의 소화기, '소방차 한 대'

의 힘을 믿으세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불길을 잡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 내에 사용하는 소화기 한 대는 실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거실이나 현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대형 재난을 막는 든든한 보물이 됩니다. 약속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잠든 사이에 도 당신을 지킵니다

화재 피해가 가장 커지는 때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여 날카로운 경보음으로 위험을 알립니다. 별도의 전기 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신속한 대응을 도와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강진의 안전, 선물로 전하는 진심 강진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소방서와 거리가 먼 농어촌 마을이 많습니. 이

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명절이나 기념일에 건강식품이나 생필품도 좋지만, 부모님과 이웃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 소화기와 감지기를 선물해 보십시오. 안전한 내일을 위한 동행 오늘 우리 집의 소화기를 점검하고, 이웃집에 감지기를 선물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화재 없는 안전한 강진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전 약속에 동참할 때, 강진의 미래는 더욱 밝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과 고영제

오늘의 운세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음력 1월 19일)

43년생 반갑지 않은 손님 한숨이 먼저 온다. 60년생 여건에서 고미운 안부를 물어보라. 72년생 송어 서보는 흥 천리까지 퍼져간다. 84년생 생각이 다른 만남을 보며, 47.96년생 열구리 절려져도 소신을 지켜라.
49년생 크게 웃을 수 있는 가래에 성공한다. 61년생 평화로운 여유 그림으로 그려라. 73년생 당당한 결의로 콧대를 높여보자. 85년생 희망이라는 작은 씨를 뿌려보자. 97년생 중흥무진 활약개운길에 걸리겠다.
50년생 낮은 자세 겸손하고 편하게 가자. 62년생 사랑 받으려는 노력을 더해보자. 74년생 멋으로 하지 마라. 잔심만 보여주자. 86년생 헛된 생각 이어도 포기하는 금물이다. 98년생 예쁘게 하는 인사 절수로 매겨진다.
51년생 대문 나서는 걸음 유난히 살려진다. 63년생 책에 있는 공부 모범생이 되어라. 75년생 근사한 갑옷 비단옷이 걸려진다. 87년생 분위기는 최고조 애정 표현해보자. 99년생 이름다운 만남 손가락을 걸어보자.
52년생 멀리 뛰기 위한 숨 고르기를 해보자. 64년생 착한 가격으로 남비를 막아라. 76년생 매력적인 재인에 끌림을 가져보자. 88년생 피하고 싶은 순간이 유를 가져보자. 00년생 좋다 싫다 없이 기다림을 더해보자.
53년생 고개 드는 유혹에서 외면하라. 65년생 어렵다 하는 부닥 품으로 안아주자. 77년생 경상으로 우뚝 만세가 불러진다. 89년생 선택의 여지 없이 차선을 가져오자. 01년생 한결같은 영원 소원 성취할 수 있다.
54년생 노련한 문제 해결 경험에서 나온다. 66년생 길들여진 습관 잘못임을 알아라. 78년생 준비는 끝났다. 출발선에 서보자. 90년생 충분한 공감 받아들이기 필요하다. 02년생 든든한 일꾼이다. 칭찬을 들어보자.
55년생 관한 신경전 피곤하고 답답하다. 67년생 든든한 동반자 같은 꿈을 가져보자. 79년생 기회다 싶어도 욕심은 금물이다. 91년생 맞는 말이 아니라, 한구로 흘려라. 47.03년생 대신하는 수고 반짝반짝 빛나.
56년생 허허롭던 마음 피랑새가 날아온다. 68년생 머릿속 복잡했던 위기가 지나간다. 80년생 천금 같은 기회 날개를 펼쳐라. 47.92년생 요란했던 등장 프리랜서가 된다. 04년생 원망도 미움도 추억으로 변화한다.
57년생 혼자자기가 아니다. 주변을 돌아보자. 69년생 장조치 잊혀지는 호사를 누리보자. 81년생 강해자는 반대와 맞서 싸워보자. 93년생 당당한 존재인 이름값도 싸파진다. 05년생 늦어지는 반응 거절임을 알아라.
58년생 장검과 단검 흑과 백이 달라야 한다. 70년생 세상이 변화해도 처음을 지켜라. 82년생 힘들고 곳은 일도 놀이로 해야 한다. 94년생 진짜 같은 거짓 꿈꿈히 다시 보라. 06년생 열심하는 모습 보고 배워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 한국도로공사 | 500 경부고속도로 50주년